

가끔은 MBTI가 마치 궁합인 것처럼 이성친구를 찾는 용도로 쓰는 우스운 경우도 봐. 자네 생각에 똑같은 유형이 잘 맞을까, 아니면 반대 성향이 좋을까?

누군가를 사귀는 데는 성격성향이 우선이 아니고, 좋고 싫음이 먼저야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유형이라면,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가 잘되어 너무 좋아. 완전 반대라면?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해서 좋지.

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유형이라면, 나의 단점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보여서 더 싫어. 반대 유형이라면 하나하나가 다 거슬릴 테고.

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, 어떤 성격이라도 맞추려고 애쓰겠지. 그게 개인이 성숙해가는 과정 아닐까? 이걸 비단 연인뿐 아니라 직장동료나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거야.